

Naxos new rele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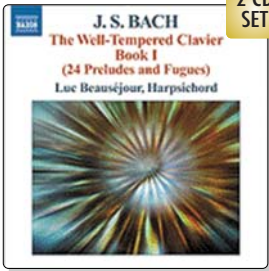
8.570309



The Art of The Flute
(모차르트, 클라우, 풀랑, 생상, 프랑사이)

볼프강 솔츠 &
마티아스 솔츠(플루트)
마도카 이누이(피아노)

8.557625-26



J.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1권
뤽 보세주르 (하프시코드)

8.570232



돌아오라 소렌토로
(트럼본으로 연주하는
이탈리아 노래들)

조셀 알레시(트럼본)
워렌 존스(피아노)
줄리어드 트럼본 콰이어 외

8.557716



바이스 & 호프만:
류트와 만돌린을 위한 소나타

비르기트 슈바프 (류트 & 아치류트)
다니엘 알레트 (만돌린)

8.570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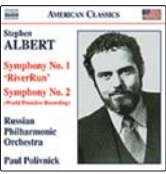
타르티나:
5개의 바이올린협주곡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
(바이올린)
펠트 제임버
헬무트 뮐러-브를

8.557854



그리그:
노르웨이 춤곡, 발라드,
장송행진곡 외
로알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바르테 앙게세트

8.559257



알버트:
교향곡 1번 '호른의 강',
교향곡 2번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 폴도스키

8.559303



세레브리에르:
교향곡 1번 '파르티타',
교향곡 2번
콘잘로 아코스타(바이올린)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세 세레브리에르

8.557824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2번,
콘체르토 판타지
콘스탄틴 셰르바코프(피아노)
러시아 필하모닉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8.557692



엘 쿠라:
피아노협주곡, 명상곡,
시곡, 세레나데
제라르 폴레(바이올린)
아멜 라흐만(피아노)
플로르 오케스트라
피에르 테르보

8.570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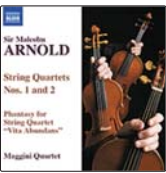
빈티지 TV & 라디오 클래식
(영국의 옛 방송용 경음악들)
앤드루 빈티(피아노)
로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폴 머피 & 제빈 서덜랜드

8.570256



글라주노프:
현악 오중주 op.39,
5개의 노벨레트 op.15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
나다니엘 로젠(첼로)

8.557762



아놀드:
현악사중주 1, 2번,
비타 아번던스 환상곡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8.557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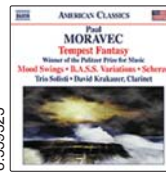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소나타, 전설,
로망스, 아상곡과 타린텔라
미리알 크레머(바이올린)
니콜라스 더컨(피아노)

8.559243



하비슨:
실내악작품집(피아노 트리오
2번, 첼로모음곡 외)
아멜리아 트리오
제이슨 덕클스(첼로)
리코예 아이자와(피아노) 외

8.559323



모라베크:
템페스트 환상곡, 무드 스윙,
BASS 번주곡, 스케르초
트리오 솔리스티
데이비드 크라카우어
(클라리넷)

8.555066



피아:
피아노작품집 vol.2
(산각모자, 허무함 인생 외)
다니엘 리고리외(피아노)

8.557833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동시대 시인들의
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3
다니엘라 신드람
(메조소프라노)
올리히 아이젠로어 (피아노)

8.55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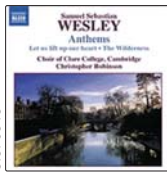
핀치:
땅, 대기 그리고 비,
발자국과 오솔길, 시를 위하여
로버트 윌리엄스 (바리톤)
이안 번사이드(피아노)
사코니 현악사중주단

8.557523



쇤베르크:
달에 출현 피에로,
제임버 실로니 1번 외
안나 실라(소프라노)
게서린 윈 로저스(메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외
로버트 크래프트

8.570318



웨슬리:
안섬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콰이어
크리스토퍼 로빈슨

8.557593-94



필리도르:
오라토리오 <속세의 카르멘>
교향곡 27번
여러 가수들
스위스 이탈리아 방송 합창단
과 오케스트라
장 클로드 말파르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April 2007

낙소스(Naxos)

2007

First New Releases

정가샘플러 발매

New Release

KBS 제1FM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News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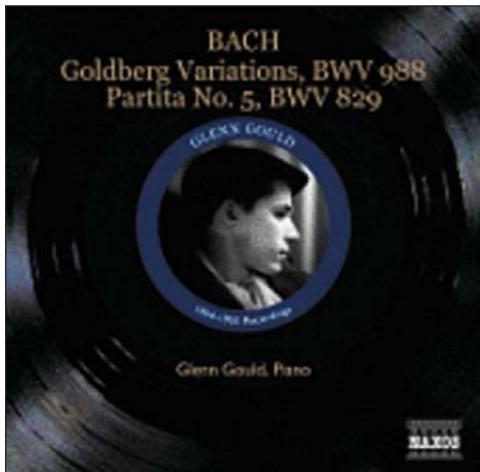
Cover Story

20세기가 낳은 기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20세기가 낳은 기인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Glenn Gould

글렌 굴드는 1932년 9월 2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다. 그의 첫 피아노 선생은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노르웨이의 유명한 작곡가 그리그의 사촌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굴드는 열 살 때부터 토론토 왕립 음악원에 다녔다. 그곳에서 알베르토 퀘레로(Alberto Guerrero)한테 피아노를, 프레데릭 실베스터(Frederick Silvester)한테는 오르간을, 그리고 레오 스미스(Leo Smith)한테는 이론을 배웠다. 1945년 굴드는 오르간 연주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섰고, 이듬해에는 토론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했다. 그가 피아니스트로 첫 무대에 선 것은 1947년이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1950년 그는 CBC에서 첫 독주회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방송 및 녹음과 기다란 인연을 맺게 된다. 1957년에 굴드는 소련을 방문해서, 바흐, 베토벤의 음악, 그리고 쇤베르크나 알반 베르크의 음악까지 연주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시대 소련에서 억압 받던 레퍼토리를 포함시켜 연주했던 사람, 2차 대전 이래 소련에서 연주했던 최초의 북아메리카 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굴드였다.



Naxos 8.111247

굴드의 음악은 그 생생한 음악적 상상력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느꼈던 것은 빛나는 창의력이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만의 지평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괴짜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의 음악에 매료되는 어찌 보면 매우 야릇한 이유다. 굴드는 같은 작품이라도 다시 연주할 때는 전과 똑같이 연주하는 법이 없었다. 굴드의 타건은 아주 명료하다. 그가 얼마나 명확한 타건을 구사하는가를 알아보려면 대위구조가 많은 바흐의 음악을 들어보면 금세 가능하다. 그는 특이한 연주자세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굴드는 매우 느린 템포의 음악을 연주할 때 몸을 시계방향으로 흔들곤 했다. 혹자는 1949년 온타리오에서 당한 사고 때문에 굴드

가 그런 자세로 연주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무튼 자세든 음악이든 그는 아주 독특하다.

바흐의 음악은 바흐의 음악처럼 연주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완고한 학자는 굴드의 연주를 신기하다고 생각할 뿐 좋아하지는 않는다. 일찍이 매우 진지한 학문적 성과에 기초한 바흐 해석을 들려주었던 구스타프 레온하르트는 글렌 굴드가 남긴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았다. 또 많은 애호가들은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굴드베르크'라 부르며 바흐의 음악이 아니라 굴드의 음악이라는 뜻의 냉소적인 농담을 즐기기도 한다. 하지만, 굴드의 스타일은 이후 바흐 음악 연주자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

굴드는 대개 상체를 굽혀 얼굴을 건반에 파묻고 잔뜩 웅크린 채 연주한다. 의문은 그런 자세로 매우 빠른 템포의 패시지를 연주하면서도 각각의 음표를 명확하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피아니스트이며 유명한 음악이론가인 찰스 로젠은 피아노 앞에 그렇게 낮은 자세로 연주하면 19세기의 화려한 기교가 요구되는 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어도 굴드의 경우는 예외

였다. 이미 많은 그의 바흐 녹음들이 로젠에게 예외항목을 만드라고 강권했고, 그가 연주했던 많은 비르투오소 낭만주의 음악들은 그가 자세 때문에 음악을 망가뜨린 예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그가 직접 편곡해서 연주한 라벨의 '왈츠'를 들어보라!

많은 지휘자나 연주자들이 청중과의 교감이나 실황에서의 아우라를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굴드는 콘서트 연주보다는 스튜디오 연주에서 더욱 더 창조적인 인간이 되었다. 그는 레코딩 스튜디오를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다. 굴드는 콘서트홀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했다. 콘서트홀을 스포츠 경기장에 비교했다. 청중과의 교감이 무슨 경쟁이나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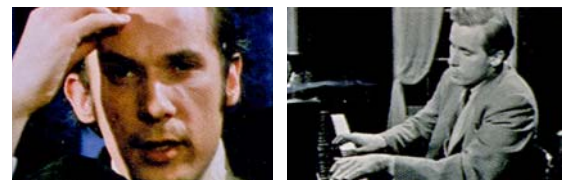
는 것 같은 분위기로 느껴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1964년 4월 10일에 마지막 현장 연주를 하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였고, 그날 밤 그가 연주한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0번, 바흐가 미완성으로 남기고 간 〈푸가의 예술〉, 크세네크의 피아노 소나타 Op.92의 3번이었다. 그 이후 그는 콘서트 무대에 나타나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작업에 매진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거나 책을 썼다. 그는 카라얀처럼 레코딩의 기술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레코딩 테이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정들은 그에게 또 다른 창조적 과정이었다. 실황연주에서는 할 수 없는 스튜디오 안에서의 여러 효과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굴드.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녹음한 〈평균율 클라비어 1집〉을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어떻게 접합해서 좋은 연주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리해보기도 했다. 주지하듯이 굴드의 첫 스튜디오 레코딩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뉴욕 30번가 컬럼비아 마스터웍스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1955년 골트베르크 변주곡이다. 물론 한 해전에도 CBC방송에서 같은 곡을 연주한 적이 있었지만, 굴드와 그의 스태프 과언 이 음악이 녹음하기에 적절한 레퍼토리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논란 중에 있었다. 하지만 결과를 내놓고 모두는 대단히 만족했다. 음반은 곧 출시되었고, 비평가는 그 음반에 엄청난 찬사를 쏟아냈다. 물론 애호가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고, 그 한 장의 음반은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그때까지 피아노 연주로 굴드만큼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렇게까지 진한 환상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없었다. 첫 음반의 대성공으로 굴드는 골트베르크 변주곡과 동격이 되었다. 그러니까 굴드하면 골트베르크 변주곡을 연상하게 되는 지금 우리의 인식과 여전히 그의 골트베르크 변주곡이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져진 결과다. 굴드는 25년 후 활발 타오르던 명성에 더욱 강력한 인화물질을 올려놓는다. 그것은 우리 애호가들이 절대적인 명반으로 꼽고 있는 1981년 골트베르크 음반이다. 이것은 CBS 마스터웍스의 첫 디지털 녹음들 가운데 하나이며 30번가 스튜디오에서 행해진 마지막 녹음이기도 하다. 1955년 녹음이 생기와 에너지로 충천하고 번덕스러운 면이 많았다면, 1981년 녹음은 템포가 훨씬 느려지고 더욱 내관적인 음악을 들려주었다. 또 초기 연주에서는 굴드가 변주곡들을 각각 분리된 소품세트로 파악한 반면, 후기 녹음에서는 아리아와 변주곡을 한 몸으로 이해하며 연주했다. 어떤 연주를 더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은 많이 엇갈린다. 자신의 음악 취향이나 바흐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본다. 하

지만, 두 연주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음반을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연주 중의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두 음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너무도 유명한 두 음반 때문에 굴드는 골트베르크 변주곡의 피아니스트로 간주되지만, 그는 바흐의 많은 건반음악들을 놀라운 통찰로 녹음했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전곡 및 그의 많은 피아노 소나타들도 녹음했다. 피아노를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위대한 폴란드 피아노 음악가 쇼팽을 멀리했던 사실은 의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아주 가끔 집에서 연주하긴 했지만, 실제로 쇼팽의 음악에는 끌리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쇼팽에 대한 비호감보다는 모차르트의 음악에 대해서 가혹한 비난을 퍼부었던 일이 더 유명하다. 그는 모차르트가 너무 일찍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늦게 죽었다고 독설을 퍼뜨렸고, 그의 음악이 단순하고 모방적이라서 흥미 없다고 말했다. 대신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건반 음악을 알리는데 열을 올렸다. 시벨리우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힌데미트 같은 작곡가들의 건반음악이 굴드의 손가락으로 해석되었고, 쇤베르크의 피아노 음악전집도 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아주 특이하게도 올랜도 기번스의 초기 건반 음악을 아주 좋아했던 그는 그를 '좋아하는 작곡가'라고 서슴지 않고 말했다.

굴드는 피아노 음악이나 실내악 작품을 쓴 작곡가이기도 했고, 바그너의 오페라 음악을 피아노 연주용으로 편곡한 사람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참으로 특이한 음악가 글렌 굴드. 그는 50세가 되던 1982년 10월 4일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도 20세기는 것처럼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것처럼 독특한 음악관을 가지고 살았던 피아니스트를 배출할 수 없었다.





Naxos New Releases



Naxos 8.570309

The Art of The Flute (모차르트, 쿨라우, 풀랑, 생상, 프랑사이)

볼프강 술츠 & 마티아스 술츠(플루트)
마도카 이누이(피아노)

1970년부터 빈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약 중인 볼프강 술츠의 예술세계를 담은 음반. 역시 빈의 중견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아들 마티아스와 빈 필의 수석 클라리넷주자인 페터 슈미들이 찬조출연하였다. 볼프강 술츠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이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쿨라우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풀랑의 플루트 소나타 등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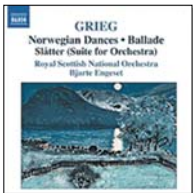


Naxos 8.570222

타르티니: 5개의 바이올린협주곡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바이올린) / 켈른 챔버 / 헬무트 뮐러-브뤼

악마의 트릴'로 유명한 타르티니는 코렐리 이후 등장한 바이올린 비르투오조 출신의 이탈리아 작곡가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135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는 빠른 악장들과 우아한 선율미의 느린 악장으로 구성된 그의 협주곡들은 이탈리아 바로크 미학의 전형을 보여준다. 1998년 ARD콩쿠르 입상자이자 현재 켈른 음대 교수인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다스칼라키스가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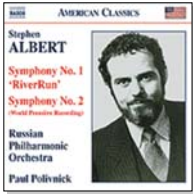


Naxos 8.557854

그리그: 노르웨이 춤곡, 발라드, 장송행진곡 외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 바르데 앙게세테

“그리그의 음악세계의 근간에는 노르웨이 민속음악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본 음반은 그리그의 관현악 소품들 중에서도 가장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골라 담았다. 노르웨이 민속 바이올린인 하딩거로 연주하는 춤곡을 일컫는 ‘슬로르’, 4곡의 노르웨이 민속춤, 장송행진곡과 혼례행렬 등의 생활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망라하였으며, 서정모음곡 중의 ‘종소리’의 관현악 편곡은 원곡을 능가하는 서정미를 보여준다.



Naxos 8.559257

알버트: 교향곡 1번 ‘호르는 강물’, 교향곡 2번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폴 폴리프닉

스티븐 알버트(1941-92)의 음악은 서정미와 다이내믹함을 겸비한다. 그는 스트라빈스키나 바르토크 등과 같이 풍부한 오케스트라의 색채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교향곡 1번은 작곡가에게 폴리저상을 안겨준 작품으로,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초 녹음인 교향곡 2번은 거의 완성직전에 작곡가가 사망하였기에 절친한 동료 세바스찬 쿠리어가 작품을 마무리지었다.



Naxos 8.559303

세레브리에르: 교향곡 2번 ‘파르티타’,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 외

곤잘로 아코스타(바이올린)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호세 세레브리에르

지휘와 작곡 양면에서 걸출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우르과이 출신의 호세 세레브리에르, 교향곡 2번 ‘파르티타’는 19세 때 완성한 작품으로, 초연 당시 미국 음악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몰고왔었던 화제작이었다.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는 9세 때 완성한 작곡가의 첫 창작곡. 이 음악가의 천부적인 천재성을 느낄 수 있다. 오디오파일 레이블로 유명했던 레퍼런스 레코드의 음원을 라이선스 재발매한 음반.



Naxos 8.557824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2번, 콘체르토 판타지

콘스탄틴 세르바코프(피아노) / 러시아 필하모닉 /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의 유명세에 완전히 가려진 비운의 작품이지만, 차이코프스키의 두 번째 피아노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율미는 각별하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만들어내는 농밀한 서정미만으로도 이 협주곡은 일청의 가치가 있다. 글로켄슈필과 탕부랭 등의 독특한 울림을 활용한 콘체르토 판타지 역시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었던 흥미로운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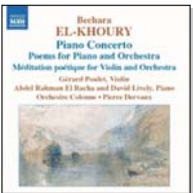


Naxos 8.557625-26

J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1권

뤽 보세주르 (하프시코드)

각각 24쌍의 전주곡과 푸가로 구성된 두 권의 평균율은 빌로우가 ‘건반음악의 구약성서’라고 칭송했을 정도로 수많은 건반 작품들 위에 우뚝 솟은 웅대한 봉우리와도 같은 작품집이다. 캐나다 출신의 하프시코드 연주자 뤽 보세주르는 톤 코프만과 케네스 길버트를 사사했으며, 보스톤에서 개최되었던 어윈 보드키 하프시코드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차세대 유망주. 1985년 포이리에르가 만든 독일형 하프시코드를 연주.



Naxos 8.557692

엘 쿠리: 피아노협주곡, 명상곡, 시곡, 세레나데

제라르 폴레(바이올린) / 압델 라흐만(피아노) / 콜롱 오케스트라 / 피에르 데르보

낙소스를 통해 선보이는 레바논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엘 쿠리의 세번째 작품집. 1984년에 완성된 피아노협주곡은 상반된 성격을 보여주는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작곡가의 장점의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시정명상과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두 곡의 시곡은 각각 마론파교회, 가톨릭, 비잔틴정교회의 영감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Naxos 8.570332

빈티지 TV & 라디오 클래식 (영국의 옛 방송용 경음악들)

앤드루 빈터(피아노) /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폴 페퍼 & 게빈 서덜랜드

영국의 TV와 라디오의 각종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되었던 경음악 소품들을 모은 음반. ‘Rule Britannia’, ‘대니보이’ 등의 친숙한 선율을 차용한 스피글의 ‘라디오 4 UK 테마’를 비롯하여, 워터스의 ‘월로우 왈츠’, 필립스의 ‘파리지안 모드’, 말콤의 ‘논스탑’ 등등 우리 귀에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부담없는 경음악들로 가득하다.



Naxos 8.570256

글라주노프: 현악 오중주 op.39, 5개의 노벨레트 op.15

파인 아츠 현악사중주단 + 나다니엘 로젠(첼로)

글라주노프는 차이코프스키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다. 화려한 색채감을 자랑하는 발레작품들과 박력넘치는 교향곡들에서는 물론, 실내악 분야에서도 선배의 농밀한 서정성을 가장 충실하게 답습했던 인물이었다. 16살에 완성한 5개의 노벨레트는 스페인, 헝가리, 동양의 춤곡리듬을 차용한 매력적인 작품. 슈베르트와 마찬가지로 첼로를 하나 더 추가한 형태의 현악오중주는 청년기의 맹렬한 창작열이 발휘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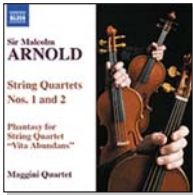


Naxos 8.570232

돌아오라 소렌토로
(트럼본으로 연주하는 이탈리아 노래들)

조셉 알레시(트럼본) / 워렌 존스(피아노) / 줄리어드 트럼본 콰이어 외

조셉 알레시는 뉴욕 필의 수석연주자이자 트럼본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폴 리처 상을 수상했던 명연주가. 트럼본의 독특한 비음으로 연주되는 이탈리아 민요와 유명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들이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카페 앙상블, 스윙밴드, 트럼본 합주 등의 반주편성을 활용함으로써 트럼본의 다양한 개성을 돋보이게 배려하였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어떤 개인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돌아오라 소렌토로 외



Naxos 8.557762

아놀드: 현악사중주 1, 2번, 비타 아번던스 환상곡

마기니 현악사중주단

작년 세상을 떠난 영국의 대작곡가 말콤 아놀드는 교향곡과 영화음악 등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내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두 현악사중주는 상반된 성격을 보인다. 1번이 청년기의 습작 성격을 지닌 작품인 반면, 30년 뒤에 완성된 2번은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 성장한 이후의 원숙한 창조력이 발휘된 걸작이다. 영국 실내악 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어온 마기니 사중주단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748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소나타, 전설, 로망스, 야상곡과 타란텔라

미리암 크레머(바이올린) / 니콜라스 더컨(피아노)

시마노프스키는 일생동안 여러 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완성하였다. 1904년에 완성된 바이올린소나타는 쇼팽과 스크리아빈, 그리고 독일후기낭만음악의 영향을 드러내는 대곡으로, 작곡가의 초기 실내악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외향적인 기교를 기반으로 한 '야상곡과 타란텔라' 는 인상주의의 영향이 느껴지며, 서정미가 돋보이는 '로망스' 역시 매력적인 소품이다.



Naxos 8.559243

하비슨: 실내악작품집 (피아노 트리오 2번, 첼로모음곡 외)

아멜리아 트리오 / 제이슨 덕클스(첼로) / 리에코 아이자와(피아노) 외

존 하비슨(1938년생)은 4편의 교향곡, 3편의 오페라, 풀러치상 수상작인 칸타타 등으로 미국현대음악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였다. 피아노 트리오 2번은 하이드의 간결한 음악구조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품. 자신의 오페라 '위대한 개츠비' 의 선율을 차용한 피아노를 위한 '개츠비 에튀드' 는 작곡가 본인이 피아노기교적으로 도전적이면서도 연주의 즐거움을 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Naxos 8.559323

모라벡: 템페스트 환상곡, 무드 스윙, BASS 변주곡, 스케르초

트리오 솔리스트 / 데이비드 크라카우어(클라리넷)

폴 모라벡(1957년생)은 서구의 음악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신선하고 개성적인 음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다. 2004년 풀러치상 수상작인 '템페스트 판타지' 는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에 대한 명상을 표현한 작품. 와싱턴 포스트가 1999년 최우수 클래식 창작곡으로 선정한 '무드 스윙', 작곡가 스스로 '컴팩트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앙코르 작품' 이라고 평한 스케르초 등등 작곡가의 대표작을 엄선하였다.



Naxos 8.555066

파야: 피아노작품집 vol.2 (삼각모자, 허무한 인생 외)

다니엘 리고리오(피아노)

파야 피아노작품전집의 두 번째 음반. 이 음반은 다른 동료작곡가들보다 관현악 장르와 무대음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던 작곡가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작곡가의 걸작 오페라 '허무한 인생' 중의 춤곡과 발레 '삼각 모자' 모음곡에 대한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편곡이 이 음반의 중심 레퍼토리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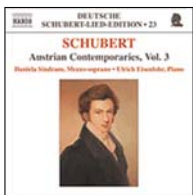


Naxos 8.557716

바이스 & 호프만:
류트와 만돌린을 위한 소나타

비르기트 슈바프 (류트 & 아치류트) / 다니엘 알레트 (만돌린)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레오폴드 바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류트 연주자의 한 사람이었고, 이보다 한세기 뒤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요한 호프만은 만돌린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았던 음악가였다. 본 음반에서는 바이스의 류트 소나타와 호프만의 만돌린과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각 2곡을 류트(아치류트)와 만돌린이라는 독특한 발현악기 조합으로 연주하였다. 만돌린의 색다른 매력을 맛보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Naxos 8.557833

슈베르트: 오스트리아 동시대 시인들의 시에 붙인 가곡들 Vol.3

다니엘라 신드람 (메조소프라노) / 올리히 아이젠로어 (피아노)

베렌라이터의 신 슈베르트 에디션에 기초하여 진행중인 슈베르트 가곡 시리즈의 23번째 음반. 작곡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시인들인, 질베르트, 쿨프, 바움베르크 등의 시에 곡을 붙인 20편의 가곡을 수록하였다. '태양에게', '아침키스', '메아리', '저녁풍경' 등을 수록. 만하임 국립가극장과 바이에른 국립가극장의 주역 가수인 독일의 메조소프라노 다니엘라 진드람의 그윽한 저성이 수록곡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Naxos 8.557963

핀치: 땅, 대기 그리고 비, 발자국과 오솔길, 시를 위하여

로데릭 윌리엄스 (바리톤) / 이안 번사이드(피아노) / 사코니 현악사중주단

제럴드 핀치는 20세기 영국 가곡장르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작곡가다. 그는 토마스 하디의 시에 기초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초기작인 바리톤과 현악사중주를 위한 '발자국과 오솔길', 원숙기의 작품인 '땅, 대기와 비' 두 작품 모두 죽음과 허무한 삶에 대한 하디의 암울한 시상을 드러낸다. 영국 성악계의 기대주 로데릭 윌리엄스의 목직한 음성이 핀치와 하디의 잿빛 세계를 음울하게 그려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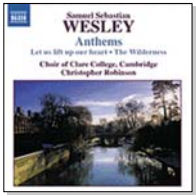


Naxos 8.557523

쇤베르크: 달에 홀린 피에로, 체임버 심포니 1번 외

안나 실라(소프라노) / 캐서린 윈 로저스(메조)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외 / 로버트 크래프트

쇤베르크를 대표하는 성악곡인 '달에 홀린 피에로'는 이전에 없었던 연극적인 요소를 적극 도입한 무조시대의 걸작으로, 기존의 성악장르의 벽을 허물어버렸던 현대의 문제작이었다. 한때 최고의 루루로 각광받았던 안나 실라는 현대성악곡에 대한 자신의 탁월한 감각을 발휘하여 이 고도의 문제작을 능숙하게 해결하였다.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에 관한 한 로버트 크래프트의 지휘는 보증서와도 같은 신뢰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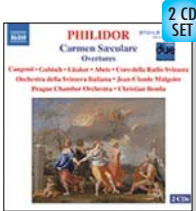


Naxos 8.570318

웨슬리: 앤섬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콰이어 / 크리스토퍼 로빈슨

사무엘 웨슬리(1810-76)는 초기 빅토리아시대를 대표하던 오르가니스트 겸 합창음악작곡가였다. 본 음반은 그가 남긴 수많은 영국성공회 앤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엄선하였다. 특히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는 이 분야에서 그의 이름을 드높였던 대표작이다. 캠브리지 클레어 칼리지 합창단의 투명한 음성과 단정한 앙상블이 영국 합창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Naxos 8.557593-94

필리도르: 오라토리오 <속세의 카르멘>, 교향곡 27번

여러 가수들 / 스위스 이탈리아어 방송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 장 클로드 말라르

캉프라의 제자였던 필리도르는 18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오페라 코미크 작곡가였다. 파리는 물론, 영국과 독일에서도 인기가 높았을 정도로 국제적이 명성을 확보했었다. 1779년 런던에서 초연된 오라토리오 '속세의 카르멘'은 오페라를 제외한 작곡가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교회음악의 장엄함과 오페라의 화려함을 교묘히 접목한 드라마틱한 작품으로, 고음악계의 주요 선각자인 장 클로드 말라르가 지휘를 맡았다.



Naxos 8.559452

이스라엘의 종교전례 음악들 (벤 하임, 라브리, 브라운)

에른스트 젠프 합창단 /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요엘 레비 & 제러드 슈워츠

음반에 수록된 세 작곡가(벤 하임, 라브리, 브라운)의 유대전례음악은 모두 미국에서 완성 및 초연된 작품이지만,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전통 전례음악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중동의 이국적인 선율들은 서구의 클래식 음악전통을 통해 보다 세련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독일의 정상급 합창단인 에른스트 젠프 합창단과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탁월한 연주력이 음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Naxos 8.559439

유대 춤곡 음악들 (울프, 미요, 사민스키, 스테인)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 바르셀로나 심포니 / 제러드 슈워츠, 조셉 실베스타인 외

유명 유대계 작곡가들의 춤곡들을 모은 음반. 스테판 울프의 발레 '미디안에서 온 사람'에서 발췌한 관현악 모음곡은 최초 녹음되는 것이다. 프랑스 육인조의 일원이었던 다리우스 미요의 발레 '모세'에서 발췌한 화려한 모음곡, 러시아 출신의 유대계작곡가 사민스키의 오페라 발레 '아리엘의 환상'의 두 장면, 시카고 출신의 젊은 작곡가 레온 스테인의 3개의 유대춤곡(Hassidic Dances)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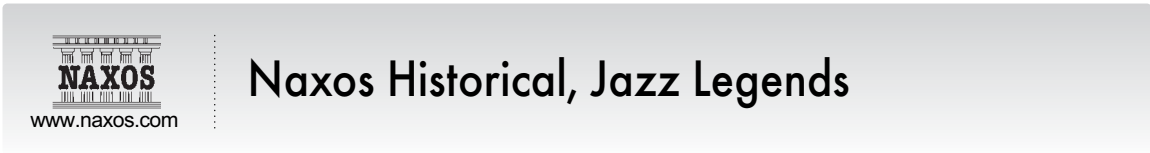


Naxos 8.559455

조셉 럼신스키와 동료들 (유대 무대 음악 Vol.3)

시몬 스피로(테너) / 에미 골드스타인(소프라노) / 브루스 애들러(테너) 외

유대 음악극장, 라디오, 영화, 보드빌 무대 등의 전성기를 장식하던 유대 노래들을 담은 세번째 음반. 이런 장르의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조셉 럼신스키(1881-1956)와 그 동료들의 대표곡들을 수록하였다. 센티멘탈하면서도 흥겨운 이들 노래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구세계에 대한 노스텔지아와 고통, 새로운 땅에서의 희망 등을 이면에 깔고 있다.



Naxos 8.111249-50

푸치니: 라보엠 (1956년 녹음)

빅토리아 로스 양헬레스 / 유시 비올링 / 로버트 메릴 / RCA 오케스트라 / 토마스 비침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라보엠 음반을 손꼽히는 역사적인 명연이 낙소스를 통해 다시 태어났다. 로스 양헬레스의 미미와 비올링의 로돌포는 최고의 앙상블을 들려주며, 미국의 명 바리톤 로버트 메릴의 마르첼로와 루치네 아마라의 무제타 역시 탁월한 조연을 들려준다. 토마스 비침이 1936년에 녹음한 또 다른 라보엠의 4막 전체가 부록으로 제공된다.



Naxos 8.111248

베토벤: 교향곡 5번, 7번 (1955년 녹음)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 오토 클렘페러

수많은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었던 거장 오토 클렘페러, 이국땅 영국에서 본고장 독일의 정통 사운드를 멋지게 재현해내었던, 이 위대한 지휘자는 베토벤의 가장 인기 높은 교향곡 두 편에서 특유의 목직한 박력과 거대한 스케일을 펼쳐보인다. 두 교향곡 모두1955년의 녹음으로 당시 모노버전과 스테레오버전이 동시에 발매되었으나, 본 음반에서는 보다 음질이 우수한 모노음원 쪽을 복각하였다.



Naxos 8.111247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파르티타 5번 (1954, 55년 녹음)

글렌 굴드 (피아노)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글렌 굴드의 데뷔 레코딩. 굴드의 최후의 녹음인 1981년의 골드베르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1955년 레코딩은 청년 굴드의 참신한 해석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또 다른 값진 선물이 함께 한다. 바로 1954년 캐나다 CBC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던 파르티타 BWV829번이 그것이다. (원 소스상의 문제로 인해 파르티타 마지막 지그에서 약간의 음 손실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Naxos 8.111139

로자 폰셀: 아메리칸 레코딩스 1923-29 Vol.2

토스티 가곡, 풍키엘리, 마이어베어의 아리아, 비습의 즐거운 나의 집 외

마리아 칼라스가 '우리 중 가장 위대한 가수'라고 칭송했던 로자 폰셀은 20세기 전반기를 장식했던 가장 걸출한 드라마틱 소프라노였다. 본 음반은 이 가수의 전성기였던 20년대 미국에서 남긴 녹음들을 담은 두 번째 음반이다. 장기였던 라 조콘다 중의 '자살'과 토스티의 '세레나데' 등을 두 가지 다른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비습의 '즐거운 나의 집', 포스터의 '스와니 강'과 같은 친근한 선율들을 함께 담았다.



Naxos 8.120846

번스타인: 원더풀 타운
프레빈 & 번스타인: 컴덴과 그린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팅

1953년에 초연된 뮤지컬 <원더풀 타운>은 번스타인 최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던 <온 더 타운>의 후편격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Christopher Street>, <One Hundred Easy Way>, <It's Love>, <Conga>등의 귀에 익은 친근한 히트곡들이 즐비한 이 뮤지컬은 오늘날까지도 브로드웨이를 대표하는 걸작 뮤지컬로 사랑받고 있다. 1953년 초연당시의 오리지널 캐스팅의 향수어린 목소리를 담았다.



Naxos 8.120813

Duke Ellington Vol.13 (Jam-A-Ditty)

1946-1947 Original Recordings

Minnehaha / Blue Lou / Blue Skies (Trumpet No End) / Concerto for 4 Jazz Horns, Jam-A-Ditty / Diminuendo in Blue / Far Away Blues / Flippant Flurry / Frustration / Golden Feather / Happy-Go-Lucky Local / How High the Moon / It Shouldn't Happen to a Dream / Magenta Haze / Overture to a Jam Session / Park at 106th / Sultry Sunset / Tulip or Turnip / Who Struck John?



www.naxos.com

Marco Polo



Naxos 8.225274

고도프스키: 자바 모음곡, 요한 슈트라우스 주제의 교향적 변용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피아노)

레오폴드 고도프스키는 19/20세기 전환기의 가장 위대한 건반의 비르투오조였을 뿐만 아니라 피아노 음악 작곡가로도 명성이 높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자바 모음곡'은 인도네시아의 이국적인 정취와 풍경을 현란한 피아노 테크닉으로 표현한 작품.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 '와인, 여자, 노래'의 선율을 차용한 심포닉 메타모르포제를 함께 담았다.



www.proprius.com

Proprius



PRSACD 2039

JS 바흐: 오르간 작품과 코랄 (Hybrid-SACD)

울프 사무엘슨(오르간) /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 / 요한 함마르스트룀

1842년에 건립된 올렌 교회의 오르간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명기로 이름 높다. 이 오르간의 화려하고도 고아한 사운드, 프로프리우스의 뛰어난 녹음, 멀티채널 SACD의 입체음향으로 감상하는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이 각별하다. 일부 코랄 전주곡들에는 올라우스 페트리 보칼리스 합창단이 노래하는 오리지널 코랄을 덧붙임으로써 보다 숭고한 느낌의 종교적인 감동을 들려준다.



PRSACD 2037

몬테베르디 / 카스텔로 / 카리시미 : 바르크 성악곡집 (Hybrid-SACD)

하모니 오브 보이시스 / 프레드릭 말름베리

하모니 오브 보이시스는 2003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단체이지만, 현재 스웨덴을 대표하는 바르크 보컬 앙상블로 급성장하였다. 본 음반에서는 몬테베르디의 유명한 '넵프의 탄식'을 비롯하여, 초기 바르크의 호모포닉 성악곡의 진수를 들려준다. 역사적인 정격성과 창의적인 해석의 절묘하게 조합한 이들의 연주가 프로프리우스가 자랑하는 고해상도의 녹음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올 것이다.



SCD 1138

평안과 즐거움 그리고 영감을 위한 피아노작품들

솔베이그 폰제트 (피아노)

스웨덴의 중견 여류 피아니스트 솔베이그 폰제트가 연주하는 평안과 안락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 쇼팽의 야상곡 2번, 리스트의 6곡의 콘솔레이션, 슈베르트의 즉흥곡 1번, 드뷔시의 전주곡 중 4곡, 스텐함마르의 '여름밤' 등 고요한 밤의 휴식에 더할 나위 잘 어울리는 평안한 분위기의 피아노 작품들을 음반 하나에 가득 담았다.



Wigmore Hall Live Series

www.wigmore-hall.org.uk/wigmore_live



WHLive 0014

슈라 체르카스키 마지막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

라모 / 하이든 / 힌데미트 / 쇼팽 / 베클리 / 리스트 / 차이코프스키

우크라이나 출신의 위대한 피아니스트 슈라 체르카스키는 낭만거장시대의 향수를 가장 최근까지 간직했었던 걸출한 비르투오조였다. 이 음반은 1993년 10월 마지막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실황을 담은 것이다. 거장이 즐겨 다루었던 리스트, 쇼팽, 차이코프스키, 하이든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상적이다. 당시 거장의 나이는 84세. 노화에 따른 체력적인 한계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지만, 기교적인 완벽함을 초월하는 노대가의 숭고한 음악적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HLive 0013

로레인 헌트 리버슨 리사이틀 (피아노반주-로저 비놀)

말라: 뤼케르트 가곡집 / 헨델: 아리아 / 리버슨: 가곡들 외

지난 2006년 7월 세상을 떠난 미국 메조소프라노 로레인 헌트 리버슨의 1998년 리사이틀 음반. 이 걸출한 가수의 때 이른 죽음을 아쉬워하는 많은 이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다. 따뜻한 음성으로 담담하게 노래하는 말라의 뤼케르트 가곡집,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헨델의 아리아들, 남편인 리버슨의 현대가곡들에 이르기까지 이 가수의 다재다능함을 실감하게 된다. 앙코르로 노래하는 흑인 영가 '깊은 강'의 감동이 각별하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340 1440-2

Hybrid-SACD 940 1440-6

슈베르트 : 피아노소나타 D959, 피아노를 위한 춤곡 모음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피아노)

Canne Classic Award : Artist of the Year 2007

2007년 칸느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된 자하리아스의 최신보.

정통 독일 레퍼토리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던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의 장점이 다시금 빛을 발한다. 슈베르트가 사망한 해인 1928년에 완성된 소나타 D959는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로부터 인용된 여러 선율들이 수수께끼처럼 얹혀있는 흥미로운 작품. 슈베르트가 가곡 못지 않게 피아노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였음을 여실히 증명하는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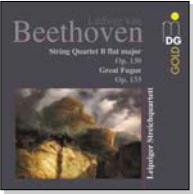
MDG 603 1442-2

온슬로우: 피아노 육중주 Op.30, 피아노오중주 Op.79bis

양상달 콘체르탄테 프랑크푸르트

실내악 애호가들을 위한 온슬로우의 네 번째 선물

영국 혈통의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온슬로우는 70여 편에 달하는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다. 피아노협주곡과 같은 웅대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피아노 육중주, 악기편성이나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모두가 슈베르트의 오중주 '송어'를 연상케 하는 피아노오중주 모두 이 작곡가 특유의 우아하고도 아기자기한 매력의 심분 드러나는 작품들.



MDG 307 0851-2

베토벤 : 현악사중주 Op.130 대 푸가 Op.133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독일을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인 라이프치히 퀴텟의 베토벤 사이클 완결작. 1988년에 결성된 이 실내악단은 그 라모폰으로부터 '최고의 독일 현악사중주단'이라는 찬사를 받았었다. 다소 기형적인 6악장 체제의 이 작품은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유명한 5악장 '카바티나'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대 푸가 Op.133은 Op.130의 이 작품의 오리지널 피날레로 씌어진 작품.



MDG 613 1433-2

신 빈악파의 스승과 제자들 (쇤베르크, 아이즐러, 울만, 코플러 외)

슈테판 솔라이머마허 (피아노)

아놀드 쇤베르크는 20세기 음악사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었던 작곡가이다. 기존 조성체계를 탈피한 그의 새로운 음악기법을 추종하였던 많은 이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그들을 가리켜 신 빈악파라고 칭했다. 본 음반에는 가장 유명한 제자들인 베르크와 베베른을 제외한 다른 신 빈악파의 작곡가들(에곤 벨레스, 요셉 코플러, 한스 아이슬러, 비토르 울만, 한스 엘리넥, 로베르토 베르하르트)의 피아노작품들이 수록되었다.



MDG 316 1290-2

뒤프레 : 오르간 작품집 Vol.8

벤 판 오스텐 (양콜렘 생 피에르 대성당 오르간)

프랑스 근대 오르간 레퍼토리의 권위자 벤 판 오스텐이 진행중인 뒤프레 사이클의 8번째 음반. 오르간 비르투오조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 걸작인 모음곡 Op.39와 삼부작 Op.51, 종교적인 영성으로 가득한 신비로운 작품인 <성모 봉헌> Op.40, 그레고리안 찬트에 기초한 8개의 전주곡을 수록.



MDG 642 1443-2

브루흐, 피츠너, 포르트너: 바이올린협주곡 (Historical)

게하르트 타슈너(vn) /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외 / 켐페, 로스바우드 외

후바이의 제자였던 게르하르트 타슈너는 40년대 베를린 필의 명악장으로 한시대를 풍미했으며, 20세기 중반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억된다. 1954년 9월 29일 녹음인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은 이 연주자가 보여준 뜨거운 열정이 최고조에 달한 열연이다. 루돌프 켐페와 협연한 피츠너의 협주곡, 로스바우드와 협연한 포르트너의 협주곡 역시 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남긴 소중한 기록들.



MDG 619 0658-2

드뷔시: 어린이 차지, 6개의 옛 에피그라프, 라벨: 쿠프랭의 무덤

칼레팍스 목관 오중주단

목관오중주(오보에, 클라리넷, 색소폰,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로 감상하는 인상주의 피아노 걸작들.

아름답게 연주 및 녹음되었다 -Fanfare-

목관애호가들의 필청음반. 자연스러운 음색을 뽑아낸 편곡수준이 대단히 높으며, 연주 역시 놀랄만하다

-BBC Music Magazine-



MDG 335 0661-2

라이하 :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교향곡 Eb장조

부퍼탈 심포니 오케스트라 / 페터 켈케

체코 출신 고전작곡가의 감추어진 보석과도 같은 관현악 작품들 -팬권가이드-***

시대를 한참 앞선 독창적이고, 재치있으며, 즐거운 작품들 -Gramophone-

뛰어난 오케스트라, 뛰어난 해석, 뛰어난 작품 -Repertoire-



Hybrid-SACD 906 1437-6

프랑크 & 랑글레 : 오르간 작품집

올페르트 슈미트 (멤링겐 마틴 성당 오르간)

독일의 중견 오르가니스트 올페르트 슈미트가 프랑크 근대 오르간 걸작들에 도전하였다. <전주곡, 아리아아 피날레>와 <전주곡, 코랄과 푸가>는 프랑크가 만년에 남긴 피아노작품들. 슈미트는 프랑크가 가장 사랑했던 악기인 오르간으로 이 두 작품을 웅대하게 연주하였다. 랑글레의 소품집은 오르간 또는 하모니움으로 연주가 가능한 작품이집, 그랜드 오르간으로 연주했을 때의 연주효과가 월등히 뛰어나다.



Hybrid-SACD 901 1325-6

하이든: 교향곡 92번 '옥스퍼드', 94번 '놀람'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아담 피셔

2006년 ECHO Klassik 추천음반 -팬권가이드- ***

이 음반은 대단히 효과적인 여러순간들을 제공한다. 밸런스, 음장감, 현장감이 뛰어나다 -Fanfare-

피셔와 그의 오케스트라는 모범적인 밸런스에 힘입어 드라마틱하고 표정풍부한 연주를 들려준다

-Sunday Times-



Hybrid-SACD 901 14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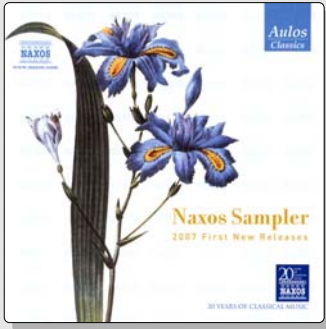
하이든: 교향곡 88번 'V', 교향곡 101번 '시계'

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필하모니 / 아담 피셔

Stereoplay 오디오파일 추천음반

92번과 94번을 담은 첫 음반의 큰 성공이후 두 번째로 등장한 아담 피셔의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 가장 유명한 교향곡의 하나인 101번 '시계'와 작곡가의 유머 감각이 넘치는 작품인 교향곡 88번과 더불어 오페라 <무인도>(L'isola disabitata) 서곡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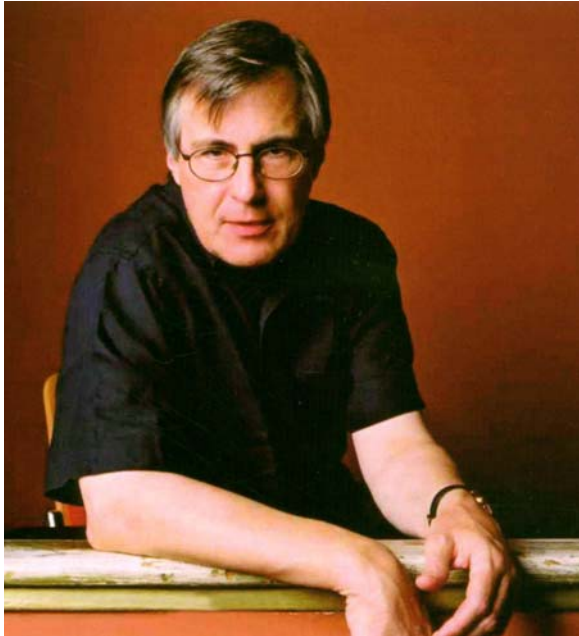
낙소스 정기 샘플러 발매 2007 First New Releases



- | | |
|-----------------|---|
| 01. 8.570033 | Carl Orff: O Fortuna <i>from</i> [Carmina Burana] |
| 02. 8.570032 | Andrzej Panufnik: Allegro <i>from</i> [Old Polish Music] [Divertimento after Janiewicz] |
| 03. 8.559240 | Aaron Copland: Hoe Down <i>from</i> [Rodeo] |
| 04. 8.557690 | Pyotr Il'yich Tchaikovsky: Melodie <i>from</i> [Souvenir d'un lieu cher] |
| 05. 8.557862 | John Dowland: Galliard to Lachrimae |
| 06. 8.557251 | Dietrich Buxtehude: Was mich auf dieser Welt betrurt BuxWV105 |
| 07. 8.557430 | Johannes Brahms: 3rd mov. <i>from</i> Symphony No.3 Op.90 |
| 08. 8.570249 | Ferruccio Busoni: Ballet Scene Op.6 |
| 09. 8.557999 | George Lyons & Bob Yosco: Spaghetti Rag |
| 10. 8.557755-56 | Johann Sebastian Bach: 3rd mov. <i>from</i> Brandenburg Concerto No.6 |
| 11. 8.557761 | Wenzel Pichl: 4th mov. <i>from</i> Sinfonia in E major 'Clio' |
| 12. 8.557704 | Victor Young: Pavane <i>from</i> [Scaramouche] |
| 13. 8.557722 | Dmitry Shostakovich: Romance <i>from</i> [The Gadfly] [arranged for cello & orchestra] |
| 14. 8.555065 | Manuel de Falla: Danza del Ritual <i>from</i> [El amor brujo] |
| 15. 8.570195 | Boris Tchaikovsky: Mazurka <i>from</i> [After the Ball] |
| 16. 8.570131-32 | George Frideric Handel: For unto us a child is born <i>from</i> [Messiah] |
| 17. 8.570217-18 | Dmitry Shostakovich: Dance of the Black man and Two Soviet Football Player <i>from</i> [The Golden Age] |
| 18. 8.557813 | Wojciech Kilar: 1st mov. <i>from</i> Piano Concerto |
| 19. 8.559432 | Arnold Perlmutter & Herman Wohl: Lebn Zol Kolumbus |

2007년 미템 클래식 어워드에서 올해의 연주자로 선정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Christian Zacharias



독일을 대표하는 중견 피아니스트인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비범한 음악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관되고 타협의 여지없는 확고한 음악관으로 유명한 그는 1969년 제네바 콩쿠르와 1973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세계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렸었다. 1975년 파리의 라벨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본격적인 피아노 솔리스트로서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이후 EMI 레이블을 통해 다수의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실연에서도 리사이틀, 콘서트, 실내악 무대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면서 정상급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하였다. 1998년부터 MDG와 전속계약 맺은 그는 스카를라티 피아노소나타음반(340 1162-2)로 에디슨상을 수상하였고, 환상곡, 론도 등을 담았던 모차르트 피아노작품집(340 0961-2)은 디아파송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자하리아스는 1992년부터 지휘자로서의 캐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제네바 소재의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를 객원지휘하면서 지휘자로서의 데뷔 무대를 가

진 이후, 지금까지 밤베르크 심포니, 잉글리시 체임버, 드레스덴 필하모니, 프랑스 라디오 필하모니, 스페인 국립교향악단 등의 유수의 악단들을 객원지휘해왔으며, 2000년에는 LA 필하모닉과 함께 지휘자로서의 첫 미국 데뷔 무대를 가지기도 했다. 2000년 9월에는 스위스 로잔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에 취임했으며, 2002/3 시즌부터 지금까지 스웨덴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예테보리 심포니의 수석객원지휘자로도 활약 중이다. 그는 여러 마스터클래스와 강의를 통해 뛰어난 피아노교사로서의 자질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는 1993년 파리의 독일문화원을 통해 슈만 작품집의 새 에디션 (Vorhalt -Nachklang -Schumanns Klangrum)을 출판하기도 했다. 자하리아스는 2007년 1월 프랑스 칸스에서 펼쳐졌던 미템 클래식 어워드(Midem Classical Award)에서 올해의 아티스트(Artist of the Year)에 선정됨으로써 다시 한번 정상급 연주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드높였다.

크리스티안 자하리아스 디스코그래피



MDG 340 1267-2

Chopin:
Piano Concertos No. 1 & 2
펍가이드 로제트



MDG 307 1249-2

Dvorak: Piano Quintet
String Quintet with
라이프치히 사중주단
Classicstoday 10/10,
스테레오플레이 추천음반
뮤직웹 이탈리아 음반, 피치카토 추천음반
Klassik.com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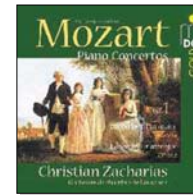
MDG 340 1245-2

Haydn: Requiem
포노포럼 추천음반
스테레오플레이 추천음반
중부독일방송(MDR)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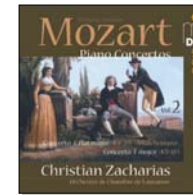
MDG 340 0967-2

Mozart: Concerto KV 503
Symphony KV 504
Aria KV 505
레프트와 Re, 펍가이드 ***
오디오파일 레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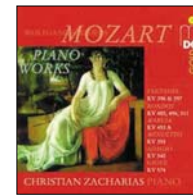
MDG 340 1182-2

Mozart:
Piano Concertos Vol. 1
(KV 482, 595)
레프트와 10, 클래식 추천음반



MDG 340 1298-2

Mozart:
Piano Concertos Vol. 2
(KV 271, 413)
무지카 추천음반



MDG 340 0961-2

Mozart: Piano Works
(KV 396, 397, 485, 494, 511 etc)
디아파송 금상, 레프트와 10,
에코 클래식 추천음반
피치카토 추천음반, 스케르초 추천음반
오디오파일 레퍼런스



MDG 340 1162-2

Scarlatti: Sonatas
에디슨상, 포노포럼 *****
르 몽드 라 무지카 CHOC,
클래식 추천음반, 스케르초 추천음반,
에코 클래식 추천음반, 독일비평가협회상,
중부독일방송(MDR) 추천음반



MDG 340 1440-2

Schubert:
Piano Works
-New Release-



MDG 307 0625-2

Schubert: Quintet D 667
(Die Forelle) with
라이프치히 사중주단
디아파송 금상, 레프트와 9,
에코 클래식 추천음반
오디오파일 레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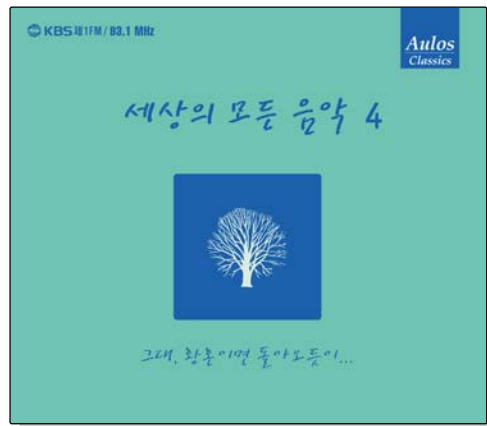


MDG 340 1033-2

Schumann:
Concerto and Concertinos for Piano and Orchestra
Classicstoday 10/10, 레프트와 10, 클래식 추천음반, 스케르초 추천음반, Klassik-Radio 추천음반

KBS 1FM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AMC2-077

저녁의 정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 그루 든든한 나무가 되어
노을처럼 다양하고,
산 속의 불빛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으로
황혼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5년 전 봄날이 기억납니다. 언제나 잔잔한 클래식으로 시작하던 저녁 6시에 ‘갈고도 조금은 다른 음악’들이 울려 퍼지자, ‘신선함’을 기대하는 시선과 ‘옛 것에 대한 그리움’의 시선이 엇갈리던 2002년의 그 봄날.

그때까지 없던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설레임’과 ‘가야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공존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은 저녁의 정서를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한 그루 든든한 나무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황혼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을처럼 다양하고, 산 속의 불빛처럼 위로가 되는 음악과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이 매일 저녁 곁에서 준비한 음악들, 우리가 그때까지 잘 모르던 낯설고도 아름다운 음악들이 애청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평화를 드렸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을 이끌어 온 가장 큰 힘은 애청자들의 성원이었습니다. ‘길이 막혀도 좋았다’는 메시지가 도착할 때, ‘따로 신청곡을 하지 않겠다’는 감사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때, ‘집에 와서도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는 공감이 전해질 때 ‘세

상의 모든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뿌듯했고,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애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위로와 평화는 ‘세음’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의 이름으로 3장의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곁에 또 하나의 음반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4집 -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의 한 대목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저녁,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더없이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물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애청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이 음반, 조금 더 원숙해진 음악의 세계를 느끼게 해드릴 것입니다.

다섯 살 아이는 더 이상 기우뚱거리며 걷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놀라울 정도로 어휘력이 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도 그렇게 진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세상의 모든 음악’은 언제나 저녁이 오는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세상의 모든 음악 제작팀

어느땐 벽이었다. 어느땐 물이었다. 벽일 땐 겸손하자, 물일 땐 감사하자.
벽일 땐 고독을 물에 흘렸고 물일 땐 감사를 벽에 새겼다.
이 앨범에 담긴 한국 한곡이, 한자 한자가 때로는 벽이었고 때로는 물이었고 지금은 세상의 모든 음악이다.

- 진행자 김 미 숙

“저녁의 사람들은 고단하다. 어깨 위에 내린 그 고단함을 풀어주는 음악과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가장 좋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음악’은 늘 진심으로 저녁식탁을 차려내었고, 어느 저녁의 식단을 떼어내어 여기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에 담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상의 모든 음악’들을 발굴해 저녁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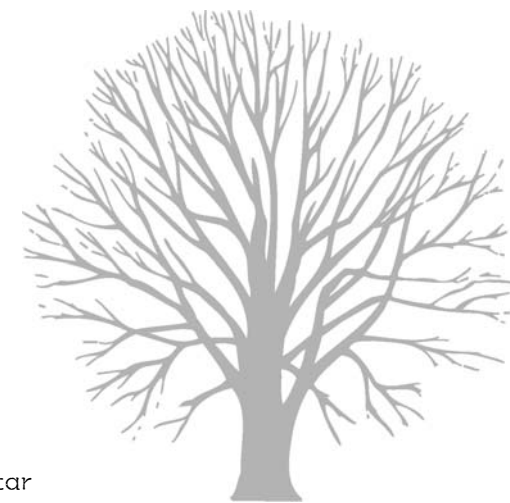
- 프로듀서 김 혜 선

“계절마다 저녁 6시의 풍경은 다르다. 지역마다 그들이 기대고 위로 받았던 음악의 빛깔도 다르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는 일이다. 저 북유럽에서 이름도 낯선 아프리카의 섬나라까지,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경험인지.
‘그대, 황혼이면 돌아오듯이’, 여기 담긴 음악들이 허전한 마음 모퉁이를 덮는 담요처럼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 작가 김 미 라

앨범수록곡 :

- 01 Turning - Suzanne Ciani
- 02 Return to the heart - David Lanz. piano
- 03 Lake isle of Innisfree - Jane Grimes
- 04 And to the each season - Rod McKuen
- 05 Carino - Chris Spheeris. guitar
- 06 The Secret Garden - Chava Alberstein
- 07 Tumbalalaika - Robin Spielberg. piano
- 08 Lake of Shadows - Aoife Ni Fhearraigh
- 09 Dimmi Perch - Eric Mattei
- 10 Ronco di mar - Bau
- 11 Horchat hai Caliptus - Ishtar
- 12 The Anniversary Waltz - Fureys
- 13 How young we were - Francis Goya. guitar
- 14 Always on my mind - Robert Bonfiglio. harmonica
- 15 아름다운 사람 - 낙윤선
- 16 Alma Mater - Rodrigo Leao



독일 최고 음향 전문회사 MDG가 내놓은 오디오파일용 Hybrid SACD Sampler

Inspirations(영감의 음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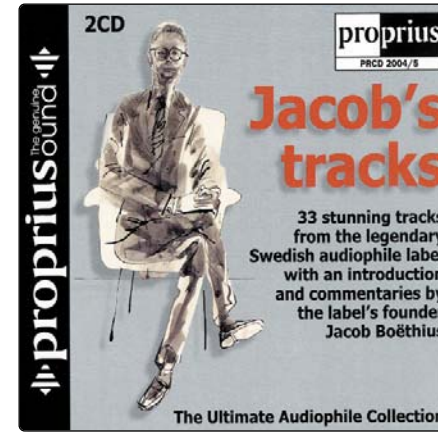
MDG 906 1449-6
Hybrid Multichannel Super Audio CD

- 디지털이 꿈꾸는 이상향, 궁극의 음향세계!
- 독일 최고의 톤마이스터 회사 엠데게가 내놓은 SACD 오디오파일
- 자연스러움의 극치, LP가 부럽지 않다!
- 스튜디오 녹음을 하지 않는 회사의 녹음철학이 그대로
-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선명하게 파악되는 초고음질
- 최고의 평가를 받은 SACD 레퍼토리에서 엄선!
- 일본 그라모폰, 스테레오 리뷰에서 최고의 평가

- | | |
|---|---|
| 01 Joseph HAYDN
Allegro from trumpet concerto E flat major
Wolfgang Bauer(trumpet) | 08 Domenico SCARLATTI
Sonata K 406 C major
Christian Zacharias(Piano) |
| 02 Antonio VIVALDI
Allegro from Concerto in D for 2 violins,
2 cellos, strings and B.c RV564
Musica Alta Ripa | 09 Joseph HAYDN
Finale. Allegro di molto from
Symphony Hob.1:94 "The Surprise"
Haydn Philharmonie, Adam Fischer(Cond) |
| 03 W.A. MOZART
Dixit Dominus from Vesperae solennes de
confessore KV339
Kolner Kammerchor, Collegium Cartusianum | 10. Anton BRUCKNER
Locus iste
Czech Philharmonic Choir Brno |
| 04 Robert SCHUMANN
Scherzo. Molto vivace from Piano Quartet op.47
Trio Parnassus | 11. Dietrich BUXTEHUDE
Toccata BuxWV 155 (1st Part) D minor
Agnes Luchterhandt and Thiemo Janssen |
| 05 Giulio REGONDI
Quatrieme etude de concert from
"Hexameron du concertiniste"
Helmut C.Jacobs,(accordion) | 12. Johannes BRAHMS
Ballade.Allegro energico from
Klavierstucke op.118
Elisabeth Leonskaja |
| 06 Robert SCHUMANN
Allegro affetuoso from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op.54
Christian Zacharias (Piano) | 13. Anton RUBINSTEIN
Erster Tanz. Allegro from "Der Damon"
Alban Gerhardt(cello),
Sinfonieorchester Wuppertal
George hanson(cond) |
| 07 Heinrich SCHUTZ
Psalm / Pseaume 110 SWV 22
Kolner Kammerchor,Collegium Cartusianum | |

프로프리우스 레이블의 창립자가 선택한 33개의 놀라운 오디오파일 트랙

Jacob's tracks(아콕의 트랙들)



PRCD 2004-2005
Audiophile CD

- 다양한 레퍼토리, 놀라운 음향, 그리고 최고의 연주들
- 프로프리우스 30주년 기념, 궁극의 오디오파일 컬렉션 2CD
- 오디오파일 음반의 전설 프로프리우스 사운드
- 레이블의 창립자 아콕 보에티우스가 직접 뽑은 33개의 트랙
- 오디오 마니아와 음악애호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고의 음향과 레퍼토리
- 자연스럽고 생생한(natural & real) 고 음질 사운드의 진수

CD 1

- GUD GAR HAR PA JORDEN (God Amongst Us)
- HOGA VISAN (Song of Solomon)
- SORGEN OCH GLADJEN(Sorrow and Joy)
- ANDE FULL AV NADE (Holy Ghost, Merciful)
- DUO PER ORGANO
- SCHAF KONNEN SICHER WEIDEN
- INTRADA PER ORGANO
- DJUPT I STENENS BLINDA NATT (Deep in the Blind Dark Night)
- SOMMARPSALM(Summer Hymn)
- COMMUNION. LES OISEAUX ET LES SOURCES
- BRED DINA VIDA VINGAR(Evening Hymn)
- NACHTSTUCKE
- DEN SIGNADE DAG(The Blessed Day)
- FUGUE NO.3
- ACH, SALIGA, SALIGA(You Blessed)
- O HERRE GUD, GUDS LAMB(Lord God, Lamb of God)
- CHACONNE, OP.8
- MINA DODA TIMMAR(My Dead Hours)

CD 2

- UPPMUNTRAN(Encouragement)
- THE MIDNIGHT SUN WILL NEVER SET
- REVEILLE - NARVA MARCH
- DOMAREDANSEN(The Dance of the Judges)
- THEME AND VARIATIONS
- VATTENKANON(Water Canon)
- EMIGRANTVISA(Ballad for an Emigrant)
- OXBERGSMARSCHEN(March from Oxberg)
- I HIMMELEN, I HIMMELEN(In Heaven)
- OM SOMMAREN SKONA(Beautiful Summer)
- HULDAS KARIN
- LANGST INNE I MITT HUVUD(Inside My Head)
- SCHERZO-RONDO: ALLEGRETTO CON SPIRITO
- TRE SMA GUMMOR(Three Old Women)
- NOW'S THE TIME



TDK DVD



TDK DVWW-CONYC7V

2007년 라 페니체 신년 음악회

지휘: 카즈시 오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오우(sop)
주제페 필리아노티(te)
로베르토 프론탈리(bar)
마시모 쿠아르타(vn)
베니스 라 페니체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2007년의 서두를 화려하게 수놓은 라 페니체의 신년음악회 수상도시 베니스의 상징과도 같은 오페라극장 라 페니체. 1792년에 건설된 이 아름다운 극장은 1836년과 1996년 두 차례나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불사조(Fenice)라는 이름 그대로 잿더미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매년 첫날 이 극장에서 펼쳐지는 신년음악회는 빈의 그것과 더불어 유럽 음악계를 대표하는 신년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콘서트는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휘자로 예정되었던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신상의 이유로 불참했던 것. 하지만 현재 벨기에 왕립 모네오페라의 음악감독인 일본의 기대주 카즈시 오노가 그 대역을 훌륭히 해내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의 친근한 관현악곡들과 더불어

어 로시니, 베르디, 벨리니의 유명 아리아들과 합창곡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2002년 영예의 베르디 황금상 수상자인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디미트라 테오도시오우, 차세대 벨칸토 테너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주제페 필리아노티,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정상급 바리톤 로베르토 프론탈리가 올해 무대를 빛낸 초대 손님들. 여기에 1991년 파가니니 콩쿠르 우승자인 마시모 쿠아르타가 출연하여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악장을 감미롭게 연주하였다.

01. Opening Credits.Vorspann.Generique debut.Titoli di testa

PYOTR I. TCHAIKOVSKY (1840 - 1893)

Swan Lake Ballet Suite

02. Scene (Act II)

03. Waltz (Act I)

04. Dance of the swans (Act II)

05. Pas d'action:Odette & Siegfried (Act II)

06. Hungarian dance (Act III)

07. Spanish dance (Act III)

08. Neapolitan dance (Act III)

09. Mazurka (Act III)

10. Final scene:Allegretto agitato-Andante (Act IV)

GIOACHINO ROSSINI (1792-1868)

11. La Cenerentola: Sinfonia

VINCENZO BELLINI (1801-1835)

12. Norma: "Casta diva"

PIETRO MASCAGNI (1863-1945)

13.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GIUSEPPE VERDI (1813 - 1901)

14. La Traviata: "di Provenza il mare,il suol

15. Rigoletto: "Questa o quella per me pari sono"

GIOACHINO ROSSINI

16. Les soirees musicales: La danza

17. IL Barbiere di Siviglia: "Largo al factotum"

NICCOLO PAGANINI (1782 - 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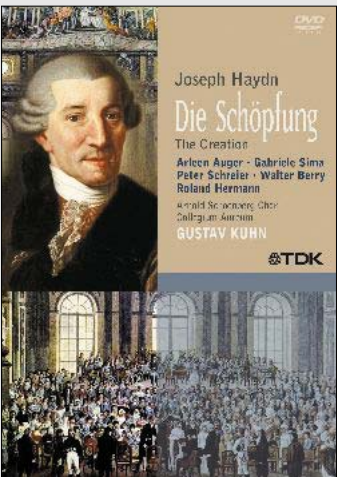
18. Concerto for Violin & Orchestra No.1: Adagio

GIUSEPPE VERDI

19. Nabucco: "Va' pensiero sull'ali dorate

20. La Traviata: "Libiam ne' lieti callici"

21. Credits.Abspann.Generique fin.Titoli di c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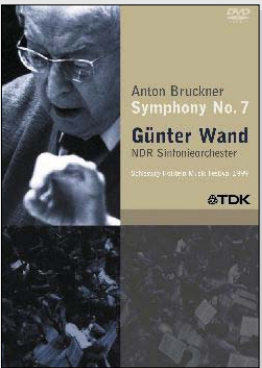
TDK DVWW-COCREA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아를린 오제(가브리엘)
페터 슈라이어(우리엘)
발터 베리(라파엘)
가브리엘 시마(에바)
롤란트 헤르만(아담)
아르놀트 쇤베르크 합창단
구스타프 쿤
콜레기움 아우레움

하이든의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특별한 <천지창조> 실황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헨델의 <메시아>에 견줄만한 오라토리오 장르를 대표하는 걸작이다. 이 작품이 만들어진 계기는 두차례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험했던 <메시아>의 엄청난 음악적 감동을 통해서였다. 자신 역시 그에 버금가는 걸작을 완성할 것을 결심했던 하이든은 구약 창세기와 밀턴의 <실락원>에 기초한 슈바벤 남작의 대본을 토대로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였다. 본 영상물은 1982년 하이든 탄생 250주년을

을 기념하여 빈 악우협회에서 주관했던 특별 연주회 실황을 담고 있다. 이 연주회는 빈의 유서 깊은 구(舊)대학(Alte Universitat) 대강당에서 펼쳐진 것으로, 당시 빈 음악계를 대표하던 다섯 정상급 솔리스트와 아놀드 쇤베르크 합창단이 참여했고, 시대악기 연주의 선각자 그룹이었던 콜레기움 아우레움이 반주를 맡았다. 독일 리트와 종교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신뢰감을 안겨주는 페터 슈라이어와 빈 국립오페라의 터줏대감으로 오래도록 사랑받았던 발터 베리의 열창을 만나는 즐거움도 크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난 1993년 54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소프라노 아를린 오제의 전성기 시절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이든과 <천지창조>에 관한 프란츠 카벨카의 18분 분량의 음악다큐멘터리가 부록영상으로 제공된다.



Opus Arte OAF 4021D

브루크너: 교향곡 7번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 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물 역시 뮌헨에서 개최되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1999년 브루크너 7번의 기록이다.



TDK DVWW-OPSIBOW

베르디: 시몬 보카네그라

토머스 햄슨의 명연기로 <시몬 보카네그라>의 진가를 확인하라!

14세기의 제노바 총독 시몬 보카네그라의 정치적 갈등과 가족사의 비극을 다룬 <시몬 보카네그라>는 주세페 베르디의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고 묵직한 남성 오페라의 걸작으로 손꼽히지만 바로 그 깊이와 무게야말로 이 오페라의 대중적 인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오페라 마니아에게나 어울리는 대작이라면 어차피 그런 맛에 맞는 프로덕션이 필요하다. 1970년대의 라 스칼라 무대를 빛낸 조르지오 스트렐리의 연출이 그랬고 최근에는 베를린 샤우유티네의 전설적 연출자이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감독으로 영입된 페터 슈타인의 프로덕션이 그렇다. 슈타인 프로덕션은 2000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 처음 선을 보여 큰 반향을 이끌어냈으며 2년 후 빈 국립가극장에 그대로 옮겨져 역시 격찬을 받았다.

빈 공연에서는 바리톤 토머스 햄슨(시몬 보카네그라)과 페루치오 푸를라네토(야코포 피에스코)의 절창이 한몫했다. 특히 슈퍼스타임에도 불

구하고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제한적 평가만을 받던 햄슨이 리트를 노래하듯 깊이 있는 가사 전달과 배역에 완벽하게 동화된 명연으로 찬사를 받았다. 거장 다니엘라 가티가 지휘하는 2002년 10월 실황.

[보충 자료]

○ 시몬 보카네그라는 1857년 초연되었다. 제노바를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도 그 라이벌 도시인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이 그 초연무대였다는 점이 흥미롭다. 시몬 보카네그라는 정적인 피에스코 가문의 마리아를 사랑하여 딸을 낳았으나 결혼 승락도 받지 못한 채 연인은 죽고 딸은 잃어버린다. 25년의 세월이 흘러 제노바 총독인 시몬은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상봉하게 되고 오랜만에 생의 환희에 감격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 음모가 진행되어 시몬은 독이 든 물을 마시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피에스코 가문과 화해를 이루면서 죽음을 맞는다.

○ 미국의 토머스 햄슨(1955~)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미성의 바리톤으로 이름이 높다. 슈만과 말러 등 독일 리트에 정통하며 프랑스 오페라에서도 최고의 성가를 누렸으나 유독 이탈리아 오페라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중후한 고음보다는 비교적 높은 음역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어서 격렬한 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점점 더 연륜이 쌓이면서 드디어 베르디를 성공적으로 불러내는 중이고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연극적인 해석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Verdi
Simon Boccanegra



TDK DVWW-OPFROS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그림자 없는 여인

자발리슈 지휘, 바바리안 국립오페라의 역사적인 1992년 일본 실황 독일의 위대한 지휘자 볼프강 자발리슈(1923~)는 1992년 당시 NHK 오케스트라의 객원 지휘자로 25년째를 맞은 동시에 21년간 몸담았던 뮌헨의 바바리안 국립 오페라 음악감독 임기를 끝내고 있었다. 이를 기념하고자 바바리안 국립 오페라의 가수와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한 일본 공연이 결정되었다. 새로 개관된 나고야의 아이치 극장에 일본에서 한번도 공연된 적이 없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을 올린다는 것이었다. 바바리안 국립 오페라는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신화적인 면모가 강한 이 오페라의 연출을 과감하게도 가부키 배우 출신인 이치카와 에노스케에게 맡겼고 에노스케는 일본 전통극의 매력을 남김없이 구현한 놀라운 무대를 꾸며냈다. 오페라의 모든 출연자가 그 연습 과정에 만족해서 이치카와를 불러온 것에 대한 감사편지를 자발리슈에게 전달했을 정도! 일본 공연은 예상대로 대성공이었고 일본 오페라 공연사의 전설로 남았다. 또 바바리안 오페

라에서도 일회성 프로덕션으로 끝내지 않고 2004년까지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꾸준히 공연했다. 페터 자이페르트(황제), 루아나 드 볼(황후), 마리아나 리포프세크(유모), 앨런 티투스(바락) 등 호화 출연진이며 음악적으로도 빼어난 공연이다.

[보충 자료]

○ <그림자 없는 여인>은 “20세기의 <마술피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환상적인 작품이다. 음악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비하고 상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에 대해 노래한다.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가 동원되지만 가장 아름다운 울림을 들려준다는 평가도 받는다.

○ 볼프강 자발리슈(1923~)는 1957년 34세라는 바이로이트 역대 최연소 지휘자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지휘했다. 1960년부터 10년간 빈 심포니를 맡았고 이듬해부터 21년간 뮌헨의 바바리안 국립 가극장 지휘자로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1993년부터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10년간 이끌었다. 독일 최고의 지휘자 중 한사람이다.

○ 일본의 대표적 전통고전극인 가부키는 무용과 음악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중연극이다. 1600년경에 발생했으며 전래의 민중극에서 사용된 가면 대신 구마도리라는 가부키 특유의 질은 화장을 하고 관능적 내용을 주로 담았다. 이 오페라의 연출을 맡은 에노스케 이치카와는 위대한 가부키 배우이면서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현대적인 기법을 도입한 혁신적 연출가요, 제작자로 꼽힌다. 이 오페라의 성공에 힘입어 2002년에는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금계>를 역시 가부키 풍으로 연출한 바 있으며 그 영상물도 TDK DVD로 발매되었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70D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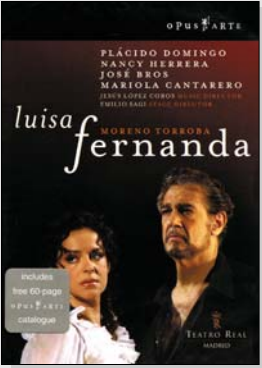
전통 스타일과 현대적 감각이 공존하는 21세기형 <코지 판 투테> 우리말로 “여자란 다 그래”로 번역되는 <코지 판 투테>는 사랑의 진정성을 조소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무시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심지어 베토벤과 바그너도 “모차르트가 왜 그의 천재를 이런 고약한 작품에 소진했을까?”하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오페라처럼 남녀 문제에 대한 진실을 실감나게 다룬 작품은 달리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그 줄거리 전개에 난감해 하면서도 즐기기 좋아하는 심정으로 이 오페라를 즐기며 지금 당장이라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감탄한다. 영국 국립 극장의 감독이자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연출했으며 영화감독이기도 한 니콜라스 하이트너는 지나친 현대적 해석을 배제하고 이 오페라의 고전적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연극인 출신답게 무척 상세한 연기와 밝은 남극적 풍취로 누구나 환영할만한 <코지 판 투테>를 만들어냈다. 2006년 여름 글라이드본 페스티벌 실행. 가장 이반 피셔가 계몽시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21세기를 뛰어넘어 젊은 가수들이 뛰어난 노래를 들려준다. 영상물로도 최상급이지만 음악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 귀중한 산물이다.

[보충 자료]

○ <코지 판 투테>는 여성의 정조를 의심하는 철학자 돈 알폰소가 자매를 사랑하는 두 남자를 꼬드겨 여인들의 사랑을 테스트하는 내용이다. 변장한 채 서로 상대방의 연인에게 접근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래 애인만을 그리워하는 태도를 취하던 자매는 결국 새로운 남자들의 애정공세에 무너지고 만다. 당대에 센세이셔널한 거부반응을 일으켰음은 물론 지금 봐도 불편한 내용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밝은 가운데 얼마나 재치 넘치게 네 남녀의 심리를 포착하고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 니콜라스 하이트너는 1956년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영국의 연극 연출가이자 영화감독, 오페라 연출가이다. 2003년부터 영국 국립극장의 감독을 맡고 있는 대가이며 영화감독으로는 <크루서블> <조지 왕의 광기> <센터 스테이지> 등을 연출했다. 세계적 히트를 기록한 뮤지컬 <미스 사이공>도 그의 연출이다. 그 커리어로 판단할 수 있듯이 그는 대중적인 친화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작품성을 끌어올리는 능력의 소유자이다. 오페라 연출로는 코벤트 가든, 글라이드본, 파리 오페라, 샤트레 극장, 제네바 오페라, 바바리아 국립극장 등에 초대받고 있다.

○ 이 영상물의 최고의 미덕은 요즘 떠오르는 젊은 가수만으로 빼어난 완성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토피 레티푸(페란도), 루카 피사로니(굴리엘모), 니콜라스 리벵크(돈 알폰수), 미아 페르손(프르딜리지), 앙케 본둥(도라벨라)이 그 주인공이며 이반 피셔가 명료하면서도 노련한 지휘로 이끌었다.



Opus Arte OA 0969

모레노 토로바: 루이사 페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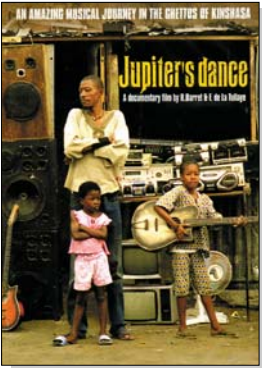
플라시고 도밍고가 열창하는 20세기 사르수엘라의 명작
사르수엘라는 대사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스페인 전통가극이며 특히 마드리드가 그 중심이다. 사르수엘라의 대가 모레노 토로바가 1932년에 작곡한 <루이사 페르난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르수엘라의 명작이며 가벼운 19세기 사르수엘라에 비해 훨씬 극적인 구성과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 2007년 OpusArte Catalogue가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운 루이사 페르난다(낸시 에레라)는 나이 든 지주 비달 에르난데스(플라시도 도밍고)와 청년 장교 사비에르 모레노(호세 브로스)의 구애를 동시에 받고 있다. 페르난다는 마음속으로 모레노를 사랑하지만 그가 다른 귀족여인의 사랑도 받고 있음을 알고는 에르난데스의 구혼을 받아들인다. 정치적 이유로 마을에서 사라졌던 모레노는 페르난다의 결혼이 임박한 시점에 옛 연인을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레노를 받아들이지 않는 페르난다. 그러나 에르난데스는 페르난다의 진정한 사랑이 모레노에 있음을 깨닫고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신부를 떠나 보낸다. 거장 헤수스 로페스 코보스가 지휘하는 테아트로 레알 마드리드의 2006년 7월 실행이며 이곳에서 태어난 오페라계의 제왕 플라시도 도밍고가 비달 에르난데스 역을 열창한다.



Opus Arte OAF 4022

풀치넬라의 비밀

18세기 베네치아 회화를 발레 <풀치넬라>에 얹은 독특한 영상물
18세기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 잔도메니코 티폴로(1727~1804)의 작품 중에는 101개의 회화를 담은 앨범이 있는데 이 그림들은 이탈리아 전통가면극의 등장인물인 퐁키넬로의 세상을 화가가 살던 당대의 연대기로, 민중 극장의 테마로, 신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패러디로 다룬 것이다. 이런 티폴로의 그림이야말로 20세기의 거장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작곡하고 발레 위스의 레오니드 마신스가 안무한 <풀치넬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스트라빈스키는 26세에 요절한 18세기의 이탈리아 작곡가 페르골레지의 작품을 인용하여 <풀치넬라>를 작곡했으며 이런 점들이 이 영상물에 영감을 제공했다. 1997년 스위스 텔레비전이 제작하고 젊은 안무가 브루노 스타이너, 대본가 카를로 이폴리토, 의상디자이너 안젤라 콘타린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인데, 발레 위스에서 초연될 당시의 대본이나 안무에 구애받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창작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회화적 장면을 구성하고 그런 배경 위에 무용수들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TV용 영상물의 이점을 십분 활용한 독특한 기획이다.



DVD9DM25

Jupiter's Dance

킨샤사 계토지역으로의 놀라운 음악 여행
킨샤사는 아프리카 정 중앙에 위치한 큰 땅덩어리의 나라인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수도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안정하기만한 상황이지만, 이 도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수많은 무명음악가들을 머금고 있다. 본 영상물은 킨샤사의 낙후된 계토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현지음악가들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생생한 화면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이 흥미로운 여행길의 가이드로 나선 주피터 보콘디는 킨샤사의 토착밴드 오크웨스 인터내셔널의 리더다. 이 궤파 뮤지션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재능을 가진 길거리 꼬마 래퍼들, 기타 제작자, 불구 블루스맨, 떠돌이 음악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20년이 넘도록 음악활동을 계속해왔던 자신의 험난한 인생여정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빈 유리병과 강통 몇 개, 조잡한 자작 현악기, 단 두개의 나무스틱만이 이들의 전부지만, 이들의 재능과 열정은 그 어떤 상업음악들 보다 더 강렬한 음악적 감동을 만들어낸다. 오크웨스 인터내셔널의 음반 <Man don't cry>가 부록으로 함께 제공된다. 월드음악 애호가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TDK

DVD
VIDEO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하는 피아노의 저녁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고전', 피아노협주곡 1번

슈만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베토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3중 협주곡



마르타 아르헤리치, 피아노
르노 카뤼송, 바이올린 | 고티에르 카뤼송, 첼로

알렉산더 라비노비치-바라코프스키, 지휘 | 플란더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5년 25회 La Roque d'Anthéron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실황.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차세대 거장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프랑스의 형제 음악가 르노 카뤼송과 고티에르
카뤼송의 열연을 뛰어난 고해상도의 화면과 DTS 서라운드의 입체음향으로 만나게 되는 최고의 기회.



표지사진 : 글렌 굴드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4월호
통권 제 21호 발행 : 2007년 3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